

전일동향

전일 종가와 동일한 1,391.90원에 마감

2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종가와 동일한 1,391.9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달러-원 1개월물 상승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0.10원 상승한 1,391.0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러-우 전쟁 확대 조짐에 소폭 상승 출발했으나,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 동결에 약세를 보였다. 이후 네고 물량 출회에 상승 폭을 반납하며 1,388.80원까지 낙폭을 확대했다.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에도 환율 상승은 제한되며, 1,390.9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5.7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95.29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91.00	1400.90	1388.80	1390.90	1391.60
	엔화	899.15	902.04	894.21	894.47	-
	유로화	1473.41	1478.17	1463.78	1465.73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53	-4.55	-11.24	-24.81
	결제환율(수입)	0.05	-3.66	-9.51	-21.4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러-우 전쟁 확대 우려에...1,400원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5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90.90) 대비 9.15원 상승한 1,398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및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강달러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우크라이나의 영국 산 미사일 발사 소식과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준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. 한편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현재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중립금리에 가까울 수 있다면서 금리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. 리사 쿡 연준 이사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하나, 다음달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. 20년물 국채 입찰 수요 부진과 연준 금리인하 불확실성에 2년물과 10년물은 각각 3.40bp, 1.30bp 상승해 4.319%, 4.414%를 기록했다. 달러화는 연준 관계자의 매파적 발언과 채권금리 상승에 강세를 보였다. 확대 우려 및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따른 강달러에 금일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국내증시 외국인 매도세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수출업체 이월 네고 유입 및 당국 미세조정 경계감 등은 환율의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94.60 ~ 1404.6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836.66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.15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3408.47, +139.53p(+0.32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2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3954 억원